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념, 목적, 방법

최 준 규*

(가톨릭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계 학교에서 수행하는 종교교육의 본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구체적으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개념, 목적, 그리고 방법적 원리를 규명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조사 연구로서, 바티칸에서 발간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 문헌들과 국내에서 발표된 종교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물들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은 가톨릭 진리를 가르치고 습득하는 교육이다. 이때 가톨릭 진리란 협의적으로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의미하는 동시에, 광의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가 지녀온 사랑, 평화, 정의 같은 '보편정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교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 성숙과 완전한 충만성에 도달하게 돕는 것이다. 끝으로 종교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여섯 가지 방법적 원리를 제안하자면, (1) 명확한 종교교육의 목적, (2) 학생들의 욕구 분석, (3) 학습자의 환경 인식, (4) 공감의 교육, (5) 종교교육 지원체제 구축, (6) 체계적 종교교사 양성 등이다.

핵심 주제어: 7차교육과정, 가톨릭계 학교, 가톨릭 정체성, 교황청 문헌, 종교교육, 종립학교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볼 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2003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

* 본 연구는 200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볼 때 15세 이상 총인구 중 종교 활동 참여 인구의 비율은 53.9%이다. 그리고 종교 활동 참여 인구 중, 불교는 47.0%이고, 개신교는 36.8%이며 가톨릭은 13.7%를 차지하고 있다.¹⁾

한국의 중등교육을 분담하고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²⁾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중립학교는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67개, 고등학교 227개, 대학(전문대 포함) 71등 총 482개이다. 이 중 불교계는 24개, 기독교는 349개, 가톨릭은 82개, 원불교는 18개, 그리고 기타 종교가 9개이다.³⁾ (표1 참조).

<표 1> 중립학교 현황 (2003년말 기준)

종교	학교 현황(개)				
	초등	중학	고등	전문·일 반대	계
불교	1	11	10	2	24
기독교	10	123	165	51	349
가톨릭	6	27	38	11	82
원불교	-	6	7	5	18
기타 종교	-	-	7	2	9
계	17	167	227	71	482

자료출처: 교육인적자원부

한편 한국 전체에서 가톨릭계 학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을 기준으로 중학교는 27개교로 전국 2,888 중학교의 0.9%에 해당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엔, 38개교로 전국 2,080 고등학교 중 1.8%에 해당한다. 같은 해 가톨릭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중학교의 경우 16,994명으로 전국 1,933,543명의 0.9%, 고등학생의 경우는 34,265명으로 전국 1,746,560명 중 2.0%에 해당한다.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⁵⁾에서 발행한 2003년 천주교회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톨

1) 통계청, <2003년도 종교활동 참여인구>, (인용날짜: 2005년 5월 21일):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WDA011&IDTYPE=3&FPUB=3.

2)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용어가 다양하다. 곧, 종단학교, 종파학교, 중립학교 등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중립학교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그 이유는 '중립학교'가 '종교계 사립학교'의 준말로 보았기 때문이다.

3) <사학법 반대 수위 높이는 종교계>, 《중앙일보》, 2005년 12월 15일자. (인용날짜: 2005년 12월 15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

4) 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통계(인용날짜: 2005년 5월 21일): <http://www.moe.go.kr> 참조.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결정에 의해 전국 차원의 문서 전교

릭계 학교들 안에서 신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0% 정도이다.⁶⁾ 가톨릭계 학교 내에서 신자학생의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지만 전체 학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줄고 있다. 이 감소는 대체로 다른 비가톨릭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취학아동의 자연적 감소 때문인 듯 보인다. 가톨릭계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 중 신자교사의 비율은 대략 60% 선으로 학생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신자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 안에 가톨릭계 학교가 생겨난 이후 종교교육은 결코 포기된 적이 없었다. 종교교육은 가톨릭계 학교의 존재이유와 교육목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계 학교는 가톨릭교회로부터 탄생한 존재이며, 가톨릭교회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존재이유와 사명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구원진리를 선포하고 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계 학교는 자신이 교회로부터 탄생한 또 하나의 교회임을 자각하며,⁷⁾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진리를 문화 속에 전파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종교다원사회 안에 존재하는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가톨릭계 학교 종교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하여 교회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리고 종교교육을 위한 방법적 원리(原理)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종교교육의 개념

1. 종교교육의 유사(類似) 용어들

종교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가톨릭계 학교 내에서 종교교육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몇몇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개념들은 선교교육(education for mission), 교목(school ministry), 교리교육(catechism), 그리고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다.⁸⁾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용어들을

등을 위하여 중앙출판사의 기능을 하도록 1952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인용날짜:2005년 5월 21일): http://www.cbck.or.kr/pds/statistic/2004_index.htm 참조.

7) 가톨릭 학교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안병조, 〈서론〉, 안병조 외, 《한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서울: 가톨릭 교육재단협의회, 1999, 참조.

8) 이 개념의 구분은 이화여고 교목인 이종용 목사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본인이 재구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당히 사용하는 형편이다.

우선 선교교육(education for mission)란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교회의 선교사명 혹은 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됨을 전제로 한 용어이다. 즉 교회가 수행할 선교사명을 교육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교육이란 올바른 학교로 운영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고, 학교를 가톨릭 정신으로 올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하며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학교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생기도록 애쓰는 일도 있겠으나 복음화라는 큰 영역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강요하는 일 등은 교육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일이다.⁹⁾

교목(校牧, school ministry)이란 학교에서 선교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모든 활동을 총칭한다. 예를 들면, 학교사목 혹은 교목이란 가톨릭계 학교가 '가톨릭' 학교답게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직접 어떤 일을 성과 있게 내세워서 행하지는 않더라도 학교의 모든 일에 관계하여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힘쓰는 일이 교목이다.

교리교육(catechism)이란 각 종파의 교리(敎理)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가지도록 교육함을 의미한다. 교리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기 종파의 신앙인을 배출하는 것이다.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란 특정종교에 의한, 종교문화에 대한, 또 종교적인 교육을 통칭하는 것인데, 맥락에 따라 적절한 의미로 알아들어야 한다. 비록 종교교육은 단순히 수업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에 국한할 수 없고,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종교교육이라 명명하는 것은 대부분 종교교과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종교교육의 유형

현행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종교교육은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생태와 환경 등과 더불어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에 편제된 교양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교양과목으로서 '종교'의 성격은 종교에 관한 기본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실존적인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주는

성한 것이다. 이종용, 〈이질집단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활기찬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참조.

9) 이종용, 위의 글, 150쪽.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 사회의 종교 상황을 다 종교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교육 하에서 종교교육의 목적은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데서 비롯된다.¹⁰⁾

그러나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다. 박범석은 존 듀이와 정진홍의 개념적 구분을 원용하여, 종교교육의 유형을 특정 종교에 의한 종파교육(education of religion), 여러 종교들과 종교 일반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그리고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으로 나누었다.¹¹⁾ ‘종파교육’은 곧 특정 종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전수하는 교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의 내용을 숙지하고 내면화시킴으로써 신앙을 독려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종교에 관한 교육’은 종교들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의미한다.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발견하여 개별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에 관한 지식들을 분석적으로 탐구하고 종교들의 교리와 전통을 비교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종교적 교육’은 종교성(religiosity)이라는 인간 내면의 종교적 성향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 종교적 정조(情操)와 인식 자체를 교육 내용으로 보는 것이다. 종교적 교육의 목적은 지적인 경험이 아닌 직관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적 통찰과 자각에 있다.¹³⁾

여기서 미리 전제할 것은 종교교육을 개념화할 때 위에서 언급한 세 정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상황에 따라 적절한 종교교육이 요청될 것이고 이때 당연히 각각 다른 종교교육의 정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또 하나 더 전제할 점은 위의 세 정의가 반드시 하나씩 독립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교육을 해 본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듯, 수업 중 종교에 대한 교육과 종교적인 교육은 흔히 혼합되며, 둘 혹은 세 정의 모두가 한 수업 안에 혼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의 정의만 옳고 다른 정의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정의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상황과 필요가 종교교육의 정의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들일까? 아니다. 종교교육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는 ‘움직이는’ 요소와 ‘고정된’ 요소가 있다. 전자는 앞에서 언급한 종교교육이 시행되는 상황, 목적,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일컫는다. 어떤 종교교육의 정의에 귀착할 지는 이러한 요소들에 상당히 의

10) 김철주, 고병철, 앞의 글, 참조.

11)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12) 박선영,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8, 참조.

13) 김경이, <이질집단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에 대한 논평>,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활기찬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174-182쪽.

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정의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소위 ‘고정된’ 요소가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불변하며 초월적인 성질을 담보하고 있는 ‘종교적 진리’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종교적 진리는 종교교육의 불가분의 요소이다.

3. 종교교육의 정의

위에서 언급한 전제들을 염두에 두고 종교교육의 정의를 내려 본다면, 종교교육이란 말 그대로 ‘종교적 진리’를 습득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그것은 ‘종교적 진리’인 종교현상과 초자연적 진리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분야이다. ‘무엇’에 해당하는 교육의 내용이 종교적 진리라면, 교육은 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종교교육은 종교적 진리를 위한 교육학 혹은 종교적 진리에 대한 교육학이다.

그렇다면 종교적 진리라고 할 때 ‘종교적’이란 무엇인가? ‘종교적’이란 의미를 역사적으로 체계화된 기성 종교의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이란 의미는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 내포하고 있는 초월적, 명상적, 신비적, 직관적 차원을 표현하는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와 많은 학자들은 공동체나 교리 중심의 종교 개념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내면의 체험적 인식으로서의 종교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¹⁴⁾ 마찬가지로 가톨릭계 학교에서 ‘가톨릭’이라는 종교성을 언급한다면, 이때의 ‘가톨릭’이란 교회의 교부나 교도권에서 유출된 교회적 전통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아니라 그 용어의 라틴어 어원인 *Universitas*가 의미하는 것처럼 개체와 전체,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는 보편성(*general*) 혹은 전체성(*universal*)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⁵⁾

종교교육을 씨 뿌리는 일에 비유해 보자. 이는 예수가 말씀한 비유인데, 예수는 씨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 자신으로,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¹⁶⁾ 이 비유의 관점에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을 볼 때, ‘씨’는 가톨릭 진리이다.

로마 교황청의 공식적 교회문헌을 보면 가톨릭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톨릭 진리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79년에 발표된 요한 바오로 2세의 《현대의 교리교육》(*Catechesi Tradendae*)은 이를 ‘그리스도의 신비’로 보았고¹⁷⁾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과 기적

14) 박범석, 앞의 글, 참조.

15) “The word catholic means general or universal. Originally applied to the universal care and providence of God, to the general resurrection, it is still used of those Epistles addressed to the Church at large and not to particular communities” Williams, M.E., *Catholic,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III, p. 261.

16)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마르코 4장 1-20절; 루가 8장 4-15절 참조.

17) 요한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5항.

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과의 친교를 이루는 것을 강조했다.¹⁸⁾ 그러나 1997년에 발표된 《교리교육총지침》에서는 보다 발전된 개념을 소개하는데, 세상에 뿌려지는 진리의 씨앗이란 하느님의 말씀, 복음, 하느님 나라, 전승들이며¹⁹⁾, 교리교육²⁰⁾이란 근본적으로 복음화(福音化, evangelization)라고 정의하였다.²¹⁾ 복음화란 “기쁜 소식을 인류의 모든 계층에게 전해 주어 그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다.”²²⁾

종교교육을 복음화로 볼 때, 가톨릭교회는 종교교육과 교리교육은 공통적으로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의 문제,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초월적 계시진리 뿐 아니라 생명, 환경, 노동, 교육, 가정, 공동선, 종교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한다.²³⁾ 그러므로 종교적 진리에 대한 관심은 종교문화 현상에 대한 주제 뿐 아니라 종교와 생명, 종교와 환경, 종교와 정치, 종교와 과학, 종교와 예술, 종교와 인성 같은 인간 삶에 대한 주제들을 포함시켜야 한다.²⁴⁾

4. 종교교육의 명칭문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교육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종교 과목의 명칭에 대한 성찰도 요구된다. ‘종교’라는 명칭이 주는 뉘앙스는 우선 특정 종교에 대한 선전 내지는 합리화를 위한 교과 같은 인상을 준다. 아니면 기존의 종교와 종교문화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이라는 편견을 준다.

그러나 다양한 개념들에 걸맞은 종교 과목의 명칭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면, 예를 들어, 종교문화에 대한 기본상식과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교육은 ‘종교학’으로²⁵⁾, 특정 종교의 가르침과 역

18) 위의 문헌, 5항, 19항.

19) 요한바오로 2세, 《교리교육 총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35항.

20) 종교교육은 교리교육과 구별되면서 교리교육을 보완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교교육은 교리교육이 지향하는 근본적 교육목적인 신앙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인 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인격형성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이하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로 칭함), 1982, 56항(인용날짜: 2005년 5월 21일): http://www.casef.org/page1_3.htm.

21) 요한바오로 2세, 《교리교육 총지침》, 46-50항.

22) 위의 문헌, 46항.

23) 위의 문헌, 18항.

24)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3권, 2001, 23쪽.

25) 김철주, 고병철, 앞의 글, 115쪽.

사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교육은 '종교' 혹은 개별 종교의 명칭인 '천주교'나 '불교' 같은 단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과목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편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종교적인 시선으로 분석과 판단을 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종교교육은 보다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제목인 종교와 세계평화, 종교문화와 테러, 종교생활과 인간성숙, 생명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종교적 관점, 종교간 대화 등으로 호칭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III. 종교교육의 목적

1. 가톨릭계 학교는 왜 종교교육을 하는가?

가톨릭계 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는 이유는 가톨릭계 학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교육은 가톨릭계 학교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또 세상과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돕는다. 사실 가톨릭계 학교의 정체성과 사명은 가톨릭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궁극적으로 종교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톨릭계 학교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지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문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톨릭계 학교는 '학교'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다른 비가톨릭 학교들과 공유하고 있다. 학교란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학생들의 전인적 형성을 이루는 장소이다.²⁶⁾ 가톨릭계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적 유산과 자기의 경험을 절대적인 가치의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진리의 의미를 파악하게 돕는다.²⁷⁾ 그러므로 가톨릭계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면에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구성해야 한다.²⁸⁾

가톨릭계 학교는 이상과 같은 '학교'로서의 일반적 성격 외에 '가톨릭'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가톨릭계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적 안목을 가질 때 '가톨릭' 학교가 된다. 따라서 '학교'로서 교육의 목표를 전인적(全人的) 발전에 둘 때, 가톨릭계 학교는 그 원형과 모범을 그

26)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제57호, 1977, 26항(인용날짜: 2005년 5월 21일): http://www.casef.org/page1_2.htm.

27) 위의 문헌, 27항.

28) 위의 문헌, 29항.

리스도로부터 영감을 얻는다.²⁹⁾ 가톨릭계 학교의 삶과 사명은 인간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에서 비롯한다.³⁰⁾ 1982년에 반포된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역시 가톨릭계 학교의 사명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가톨릭계 학교의 고유한 사명은:

- ① 학교 내에 자유와 사랑의 복음적 정신으로 충만한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 ② 청소년이 자기 인격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성세(聖洗)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하도록 그들을 돕고
- ③ 학생이 세계·생활·인간에 대해 습득하는 지식이 신앙으로 조명되도록 인류의 전문화를 궁극적 구원 소식에 질서지어 주는 것이다.³¹⁾

종교교육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교'인³²⁾ 가톨릭계 학교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효과적이다. 종교교육이 교회의 종교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람들의 개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엄밀하게 완전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종교교육을 내포하는 것이다.³³⁾ 왜냐하면 종교교육은 직업적 투신, 진리와 정의와 자유의 옹호, 타인의 견해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에 대한 몸이 밴 봉사자세, 학생들에 대한 친밀한 헌신과 모든 사람과의 형제적 연대,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윤리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³⁴⁾

2. 종교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종교교육의 목표에 대해 정진홍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보았다.³⁵⁾

- ①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
- ②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심을 확충

29) 위의 문헌, 34-35항.

30) 위의 문헌, 36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라틴어 대역(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2항.

3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38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8항.

3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의 가르침》 제13호, 2000(인용날짜: 2005년 5월 21일): <http://www.cbck.or.kr/pds/period/docucatholic/2000/13/educatio.htm>.

33) 위의 문헌, 19항.

34)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52항.

35) 정진홍, 앞의 글, 29쪽.

③ 다른 종교들을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 배양

이어서 이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정진홍은 종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전한 종교관이 사실상 종교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② 신앙심 확충과 ③ 종교적 포용은 첫째 목표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한다. 또한 종교에 지식습득이 종교교육의 현재적(顯在的) 목표라면 다른 것들은 잠재적 목표가 된다고 말한다.³⁶⁾ 정진홍의 이런 시도는 종교수업의 세 가지 목표들이 범주적 등가성(等價性)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될 때, 개념의 명료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편성하느냐 하는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 보겠다.

한편 가톨릭교회의 문헌이 제시하는 종교교육의 목적은 분명하다. 종교교육은 무엇보다, 종교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교교육은 인간의 내면생활에 중점을 두고 내적, 영적 자유에 도달하는 성인(聖人)을 지향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은 교육을 통한 인간성숙의 추구하고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의 충만성에 도달하는 것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때 성숙한 신앙은 인간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이런 인간성숙은 그리스도인이 완성에 이르는 데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³⁷⁾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한 인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성적(人性的)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이 은총의 효력을 더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헌장〉(*Lumen Gentium*)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사랑의 완성을 지향하는 자, 그리스도인 생활의 충만성을 향유하는 인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혹은 완덕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 모습을 닮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 봉사를 통해 도달하게 된다.³⁸⁾ 반면에 정신적 결함이나 왜곡된 성격이 있을 때 인간은 은총에 대한 응답과 표현에서 한계점을 드러낸다.³⁹⁾

36) 정진홍, 앞의 글, 9쪽.

37)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2항.

38)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라틴어 대역(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40항.

39) 정신의학자들은 자아나 타인에 대한 개념 혹은 인격구조 안에 이상(異常)이 있는 사람에게서 간혹 일그러진 하느님 상(像)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정신계통의 미성숙자는 다양한 변태적 종교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신이 건강할 때 종교심이 정상화될 수 있으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톨릭 교육성의 문헌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1982)는 가톨릭계 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교육의 목적이 인격의 총체적 양성이라고 보고 있다. 인격의 총체적 양성인 전인교육이란 '종교교육과 더불어 직업생활의 준비, 사회의식과 윤리의식의 형성, 초월자에 대한 의식화 등 학생들의 모든 인간적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올바른 선택에 의한 결단을 내리고 굳건하고 책임감이 있으면서, 자기자신을 점점 더 현실에 개방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⁴⁰⁾

또한 가톨릭계 학교가 수행하는 종교교육의 목적은 교회문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는 지식과 진리, 이성과 신앙, 지성과 사랑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적 행위들(교육, 연구, 봉사)이 진리, 신앙, 그리고 사랑에 기초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무가치하고 불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인식의 통합: 가톨릭학교에서 수행되는 교육은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진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염원들을 모아 고도의 수준에서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적 지식과 사고로부터 참다운 '지식의 분별력'을 회복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과목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고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데 통합되어야 한다.⁴¹⁾

② 신앙과 이성의 대화: 가톨릭학교에서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정신은 각 교과목들이 각기 다른 내용과 방법론을 다루지만 그것들이 더 높은 차원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취를 따라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유일한 진리에 합치되는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⁴²⁾

③ 지성과 사랑의 통합: 가톨릭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파악되는 지식들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늘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곧, 기술적인 것에 대한 윤리적인 것의 우월성, 사물에 대한 인격의 우월성,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느님의 우월성을 늘 기억하면서 학문적 인식이 양심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⁴³⁾

40)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17항.

4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1-2항.

42)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10항;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가르침은 인간 이성을 사용한다. 그것은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공로가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 안에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이성이 사용되는 것이다. 은총은 자연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하기 때문에 자연이성은 신앙에 조력해야 한다"(S.T. I, Qu. 1, art. 8, ad. 2).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정의채 역, 《神學大典 1》,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48쪽.

3. 종교교육이 왜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종교교육은 유익한가? 종교교육은 종립학교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도 역시 유용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종교교육은 세상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필요하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다. 사람들이 가진 극단적인 종교적 독선과 배타성은 민족과 나라,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다.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이들의 종교성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종교교육은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국민적 차원의 모든 공교육에서 실시할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⁴⁾

둘째, 종교교육은 한 국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국민적 자원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종서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국가는 일정한 교육을 의무로까지 국민에게 부여하면서 넓은 의미의 국가를 위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다.⁴⁵⁾ 인적 자본은 국민의 육체와 두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영적인 풍요로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훌륭한 인적 자본의 인프라가 된다. 종교가 지닌 역사, 전통, 예술, 예식, 경전 속에 전수되어 온 영적인 보화야말로 영적인 인프라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공교육의 일환으로써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적 자본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종교교육은 한 개인의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 종교교육과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과 연결시키려는 전통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⁴⁶⁾

43)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9항, 30항, 39항.

44) 종교간 상호이해가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견해는 종교간 대화(religious dialogue)에 있어 恒存해 왔던 주장이다(출간순): 변선훈, Raymond Panikkar und Hindu-Christian Dialogue, 《신학과 세계》 제2권, 1976; 변선훈, 타종교와 신학, 《신학사상》 제46권, 1984; 김종서,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3권, 2001; 정진홍, 앞의 글, 2001; 정진홍, <韓國에서의 宗教教育의 諸問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輯 第41輯 別冊, 2002; 이용훈, <다종교상황에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제3회 가톨릭학교교육포럼 자료집, 2004년 6월 참조.

45) 김종서, 위의 글, 38쪽.

46) 종교교육을 인격도야, 수신(修身), 인성교육, 도덕교육, 봉사교육 등으로 보는 견해들은 상당히 많다(출간순): 김종서,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종교와 인성 그리고 도덕의 연관성은 종교적 진리 안에 인간의 충만함과 인간의 길(도덕)이 풍요롭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혹자는 이런 종교교육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호교론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보고 있으나⁴⁷⁾ 종교적 체험과 헌신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 본 사람이라면 교육이 초월적인 면에 다다르지 않을 때 올바른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의 문헌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19항은 “완전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종교교육을 내포한다. 종교는 인격의 다른 측면들의 발전에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하게 마련이며, 그런 점에서 전반교육에 통합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 세 가지 이유의 기저에는 이른바 학생들의 문제 중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 학생들의 종교성은 한편으론 인성을 성숙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론 독선적이고 자폐적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의 종교성과 종교에 대한 태도는 학생지도상의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교육과 학생지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더 없이 중요하다. 현대 우리 사회의 다종교 상황이 빚는 긴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인성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종교교육을 결코 종립학교에 한정되는 교양선택 과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고, 시민 누구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될 관심사이다. 그렇다면 종교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그러한 한정된 틀을 넘어 시민 교육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⁴⁸⁾

가톨릭교회는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종교교육은 어떤 형태의 학교에나 적절한 것이니, 왜냐하면 학교의 목적인즉 모든 기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인간의형성이요 종교적 차원은 이 인간 형성의 불가결한 완성부분이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은 실상 학생과 부모의 - 의무를 수반하는 - 권리이다. 이것은 또한 적어도 가톨릭교의 경우에 관한 한 매우 자주 주장되어 온 신앙과 문화의 적절한 종합을 얻기 위한

《교육개발》 제14권, 1992; 류성민,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4; 김세곤, 〈일본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3권, 1997; 김형중, 〈한국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3권, 1997; 손원영, 〈제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3권, 2001; 이세현,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교의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6권, 2003; 정현숙,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톨릭의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6권, 2003.

47) 김철주, 고병철, 앞의 글, 125쪽.

48) 정진홍, 앞의 글 참조.

지극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종교교육은 본격적으로 교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되는 동시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모든 학교의 교과과정의 일부를 이루어야 한다.⁴⁹⁾

IV. 종교교육 방법

앞에서 살펴본 종교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충실한 교육이 되기 위하여 어떤 길이 있을까? 종교교육을 하는 것과 다른 교육을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의 문헌은 종교교육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종교교육의 고유한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헌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이 받은 임무를 관대한 마음으로 완수하여 학생에게 그리스도 정신을 넣어줌에 있어서 또 교육방법론과 학문연구에 있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이것은 교회의 내적 일신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세계 특히 지적 분야에 있어서 교회가 봉사하고 그 자비로운 현존을 더해가기 위해서이다.⁵⁰⁾

종교교육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교육의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종교교육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도전은 더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우며, 교육의 사회적 기능 또한 매우 확대되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에 발표된 교회 문헌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는 이런 상황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기능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복잡하여지고 더 전문화되었다. 과거에는 아동 연구와 교사 양성에 집중되었던 교육학이 그 범위를 넓혀, 삶의 여러 단계와 학교 밖의 다양한 영역과 상황을 포함하게 되었다. 새로운 필요조건들이 전통적인 것들 이외에도 새로운 내용, 새로운 능력,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를 낳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학교 교육과 양성은 유달리 어려워지고 있다.⁵¹⁾

종교교육의 고유성을 염두에 두면서 좋은 종교교육을 위한 6가지 방법적 원리(原

49)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56항.

50)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90항; 요한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58항.

5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2항.

理)를 제시해 보겠다.

1. 명확한 종교교육 목표

앞에서 종교교육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종교교사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겠다. 다양한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할지, 가톨릭 교리에 대한 교육을 할지, 아니면 가톨릭적 정신을 잠재적으로 염두에 둔 채 인성계발과 공동체성을 강조한 교육을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물론 반드시 하나의 유형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으나, 유형을 정해야 교육목표를 정확히 잡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원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단히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교육의 목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회의 문헌은 종교교육을 단순히 다른 학과에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호교론적으로 이용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도록 충고한다.⁵²⁾ 종교교육은 전인적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⁵³⁾ 교회는 종교교육을 통해 인간을 전인적으로 형성한다.⁵⁴⁾ 전인교육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이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⁵⁵⁾ 무릇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육체는 감성의 자리이고, 정신은 이성의 자리이며, 영혼은 감성과 이성과 영성을 통합하는 장소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인성교육의 꿈이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일진회, 대리시험, 교사의 시험대필 등으로 이어지는 붕괴된 교육현실을 만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인교육을 위해 수행되었던 기존의 인성교육이 위에서 말한 인간 본성의 세 가지 본질을 통합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주로 이성을 위주로 한 합리성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은 무엇을 단순히 이해하는 인지(認知)작업을 넘어선다. 종교교육은 인간의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사람을 추구한다. <가

5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39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개의 학과목은 그 과목의 특수한 방법에 의거하여 교수되어야 한다. 각 과목을 신앙에 연관되고 부수되는 과목처럼 간주하거나 호교론을 전개하는 유용한 수단처럼 여기는 일은 잘못이다. 각 과목은 학생이 기술과 지식과 지적인 방법과 도덕적 사회적 자세를 습득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수되어야 하며, 이 모든 요소들이 학생의 인격을 발달시키고 학생으로 하여금 인간 공동체의 능동적 성원으로 처신케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요소들은 지식을 획득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가치의 획득과 진리의 발견에 목적이 있다.”

53)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9항.

54) 위의 문헌, 14항.

55) 한영란, <교사와 영성교육>, 서울: 내일을 여는 책, 2004, 26쪽.

톨릭학교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종교교육과 다른 형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종교교육이 단지 종교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의 존재를 귀의시키는 거기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⁵⁶⁾ 이 진술이 비록 가톨릭계 학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교육의 핵심은 종교교육을 통한 인간 존재의 변화이다.

2. 학생의 욕구 분석

종교교육은 교육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 모름지기 교육이란 교육주체의 욕구에 부합할 때 그 목적이 달성된다. 종교교육이 대상자들의 문화, 연령, 영적 성숙도, 사회적 문화적 상황 등의 다양성에 맞추어 전달될 때 그 교육의 효과는 배가된다. 마찬가지로 만일 종교교육이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수행된다면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세기 동안 교회의 공식문헌들과 논문들 속에서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합의들이 있어왔다. 종교교육에서 초월적인 신앙의 진리를 청소년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기의 신체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정서적 특성에 따른 교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다양한 학습이론의 기본원리들을 활용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다.⁵⁷⁾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은 인간 욕구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인간은 하위단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 안정과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 이론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사람은 하위의 욕구를 충족시킨 이후에야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종교교육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유불선에 대한 진리들과 삶과 죽음, 고통과 인내, 대화, 사랑, 환경, 전쟁과 평화 같은 주제들은 이 욕구단계의 최고 단계인 자아실현의 단계 내지는 자아존중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상위의 욕구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면서 개인과 사회를 위한 공동선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자아실현의 체험을 하게 만들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頂上體驗이라는 것이다.⁵⁸⁾

56)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50항.

57) 윤주병, 《종교교육과 청소년지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이봉우, 《종교교육》, 경북: 분도출판사, 1989; 허종열, 《교육과 생명의 주기》,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1, 참조.

5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사람과 사람》,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

그런데 이 이론에 의하면 왜 종교교육을 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즉 엄밀한 의미의 종교교육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매슬로우의 하위단계들의 위협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접하는 의식주의 문제, 대학입학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안정적 보장,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부모와 어른들의 인정,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한 불안은 종교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 학생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찾는 것은 미래에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3. 학습자의 환경 인식

욕구이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공적인 종교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로 돌아가 보자. 종교적 진리인 씨앗의 상태를 고정적인 것으로 상정한다면, 씨가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는 밭의 조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의 성패는 밭의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비옥한 양질의 밭을 일굴 것인가에 달려있다.

종교교육의 밭을 이루는 청소년은 세상의 만연된 정신적 문화적 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다.⁵⁹⁾ 청소년들은 급속하고 혼란스런 문화적 변화, 실업, 저개발, 소비사회의 압력, 권태와 불안, 소외, 성적 환상 등 그들을 영성적 윤리적인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할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아이들의 환경을 생각해 보자. 각종 시험, 대학입시, 사교육의 압박, 세대 간 격차, 가족대화의 부재, 춤, 노래, 비디오, 게임, 영화, 연극 등 모든 문화전반에 퍼져있는 성과 폭력, 외모지상주의, 성형수술, 용돈, 원조교제, 인터넷 채팅과 번개, 왕따, 금품갈취, 집단폭력 등이 청소년들의 환경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압력들은 성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그것보다 크다.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성적인 갈등과 특징은 단순한 신체적, 대인간적, 정서적인 특성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반가운 소식은 청소년들에게 자주 보는 진지함, 순수함, 사회참여, 연대의식, 종교적 헌신, 의미추구 등은 그들이 자신들의 거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준다.

가톨릭계 학교의 교사들, 특히 종교교사들이 청소년들의 처지와 조건들에 보다 깊은 이해를 갖고, 학생들의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누리게 될 영성적, 윤리적 풍요로움은 얼마나 클까 기

90-92쪽.

59) 요한바오로 2세, 《교리교육 총지침》, 181항.

대를 부풀리게 된다.

4. 공감의 교육⁶⁰⁾

종교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교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나 학년 또는 학급에서 종교수업과 종교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는 모든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종교적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이다. 공감대의 형성은 수업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증대시킨다.

학습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두 가지 접근이 있다.⁶¹⁾ 하나는 다양한 교수방법의 활용이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분위기의 조성이다. 다양한 교수방법, 예를 들어 모델링, 역할놀이, 게임, 글쓰기, 집단토론, 가상연습, 시, 소설, 이야기 책, 문학작품, 역사적 인물, 성경,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 사진, 테이프의 활용 등이 있다. 이는 종교수업 뿐 아니라 학습자를 고려하는 모든 교육과정 운영에서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다. 학습자를 떠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습자 중심 참여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발달된 ‘창의적인 교수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교과와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시험 또는 입시 제도를 교육의 큰 장애물로 지적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핑계로 많은 것을 양해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⁶²⁾ 그것은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학생 통제의 방법이자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묵인해주는 합당한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공감을 얻는 방법은 재미, 흥미, 친숙감, 분위기 등이다. 수업시간을 좋게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영화보기, 감명 깊은 이야기 듣기, 실화듣기, 복음성가 부르기 등이 있다. 오늘날 ‘재미’는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활동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화자(話者)에 따라 ‘재미’의 구체적인 근거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재미’는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 결정 요인이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준거로 활용 될 만큼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화보기’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된다. ‘영화’는 이미 전통적인 인쇄매체가 갖던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공유해 가고 있으며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영화는 시각 혹은 시청각 매체로서 인간의 눈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소통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60) 이 부분은 김경이의 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김경이, 앞의 글, 57-58쪽.

61) 이종용, 앞의 글, 41-42쪽.

62) 박경현, 〈가톨릭학교 교사의 삶, 가톨릭학교 교사의 영성〉(가톨릭학교교육포럼 2004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2004년 11월), 참조.

을 담당할 수 있다.⁶³⁾

5. 종교교육 지원체제 구축

학생의 공감을 얻기 위한 수업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⁶⁴⁾ 이질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종교교육에서 학생의 공감을 얻는 것은 수업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수업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학교 종교교육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평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공감을 얻는 것은 모든 수업에서 고민되어야 하고 또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개별 교사에게 책임 지워서는 안된다. 종교교육은 종교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문헌에서도 종교교육의 교수법에 대한 준비는 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⁵⁾ 교회문헌 뿐 아니라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수업을 위한 체계적인 수업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조직학습’, ‘협동학습커뮤니티’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체제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가칭 ‘종교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종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6. 체계적 종교교사 양성

교사는 종교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의 성패에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이다.⁶⁷⁾ 가장 결정적인 매개라는 점이다.⁶⁸⁾ 문헌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19항은 “가톨릭학교가 그 목적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들[교사: 저자 첨가]에게 달려

63) 신광철, 《영화와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7권, 2003, 59-78쪽.

64) 김경이, 앞의 글, 58-59쪽.

65)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66항.

66) 이미 그러한 노력이 있다. 가톨릭계 학교 종교교사를 위한 연수가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길동무’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나누고 있다.

6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8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40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40-43항, 73항, 78항.

68) 김경이, 앞의 글, 58-59쪽.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톨릭계 학교에서 모든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관계이다. “교사는 무생물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교육시키기 때문이다.”⁶⁹⁾ 이러한 독특한 그리스도인 학교의 분위기를 창출할 주된 책임은 교사 개개인과 공동체에게 있다.

교황 비오 12세는 이태리 초등학교 교사 연합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교사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교사의 특별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교사(Teacher)”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호칭입니다. 교사의 기능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지닌 기능보다 훨씬 높고 깊은 차원을 지닙니다. “교사”는 어떻게 자신과 학생의 영혼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진리와 덕을 형성하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⁷⁰⁾

그렇다면 어떻게 현행 국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어긋나지 않고 또 이질 집단 즉 타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교사의 ‘삶’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는 그가 믿는 신앙의 교리 지식을 수업시간에 교과로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그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교육자가 비가톨릭 학생들과의 접촉에서 ‘존중 뿐 아니라 환영하고 대화하려는 개방된 보편적인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동기가 되어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업 시간의 교과 지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지만 교사는 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삶으로써 그가 전하고자 하는 신앙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또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성직자는 종교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담당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 교육이 모두 성직자에 의해 맡겨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인 또는 평신도가 맡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재교육이다.

가톨릭계 학교의 교사는 일반적인 지식과 종교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시대적인 변화와 종교적 진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언제나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⁷¹⁾ 특별히 그들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적절한 양

69)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19항.

70) Pius XII, Trans. A. Rebeschini, *The Catholic Teacher* (4 Nov 1955), *Education: Papal teachings*, Boston: St. Paul Editions, 1960, p. 514.

7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5항, 8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성을 받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전문적이거나 일반적인 지식보다는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⁷²⁾

V. 나오는 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근대학교들의 대부분은 종립학교들이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로 배제학당(1885), 경신학교(1886), 이화학당(1886) 등이 그 예이다. 또 향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올해(2005년)에 150주년을 기념한 가톨릭대학교의 모체인 충청북도 청원군에 존재했었던 ‘배론 신학교’는 1855년 당시 10명의 신학생들이 2명의 외국신부로부터 서양식 커리큘럼에 의해 사제양성을 받았다. 이처럼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학교들은 설립초기부터 종교교육을 중단 없이 실시해 왔다. 그러나 두 세기에 걸친 우리의 종교교육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합의는 물론이고, 종교교육의 개념조차도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 종교교육의 튼튼한 학문적 기초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숙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연 종교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 앞에서 규명하였지만, 많은 종교교사들은 종교들에 대해 교육하는건지, 교육을 종교적으로 하는건지, 우리 가톨릭 교리를 교육하는건지,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를 의미하는지에 분명한 입장을 지니지 못한 것 같다. 종교교육의 목적에 관해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종교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니,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과 목적 아래에서 정확한 종교교육의 내용이 도출되었을 것 같지 않고, 또 종교교과에서 다루는 많은 내용들이 다른 교과들, 예를 들면, 사회, 도덕, 국사, 국어 같은 교과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니 각 교과에서 다루는 종교적인 내용의 교육목표와 교육적 효과에 대해 통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강조된 바대로, 종교교육은 먼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지닌 학생들의 전인적 내지는 통전적(統全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합체(合體)가 아니라 온전히 육체적이면서 온전히 정신적이며 온전히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에서 몸을 순수 육체적인 것으로, 마음을 순수 정신적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은 인간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통합된 하나이다. 인간은 또한 사회와 세계와 신 같은 타자(他者)에게 개방된 존재로서 이들과 긴밀히 상호 연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60항.

7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60항.

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인간의 육체, 정신, 영혼의 관계가 그러하듯, 타인, 사회, 세계, 신은 한 인격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러한 인격의 내면과 인격적 관계에서 상호연결성 혹은 상호의존성을 깨닫는 것이 종교교육의 목표이며 다양한 종교교육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종교교육은 교육의 영성화(spiritualization of education)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통전적 인간존재의 의미를 영성적으로 회복시키는 교육적 시도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패러다임과 교육 시스템을 영성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변환시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인간관, 교육목표, 교과과정, 교육방법, 학교의 기능 등을 영성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이것을 일컬어 교육의 영성화라고 말할 수 있다.

종교교육은 교육을 영성화 하는 과정(process)이라면, 학문으로서의 종교교육학의 대상은 물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기호 혹은 기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종교교육학은 영성적 기호 즉 인간과 세계와 신에 대한 기호들을 그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기호들의 의미를 통전성 안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학문이다.

종교교육을 영성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세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종교라는 용어가 주는 특정 종교 내지는 종파에 대한 호교론적인 인상을 피할 수 있고, 둘째는 종교교육의 목적이 전인교육이라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인간의 본질이 타인, 세계, 신과 넘나드는 초월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종교교육의 개념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며, 셋째는 종교교육에서 추구하는 종교적 진리, 즉 수용, 관용, 용서, 사랑, 자비, 인내 같은 가치들이 하나의 교과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 내 활동이나 교과 외 활동 등 모든 학교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작업을 돕는 실천적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사람과 사람》,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0.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통계자료[인용한 날짜: 2005년 5월 21일]. 인터넷 주소: <http://www.moe.go.kr>.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제57호, 1977[인용한 날짜: 2005년 5월 21일]. 인터넷 주소: http://www.casef.org/page1_2.htm.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13호, 2000.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1982, [인용한 날짜: 2005년 5월 21일]. 인터넷 주소: http://www.casef.org/page1_3.htm.
- 김경이, 〈“이질집단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에 대한 논평〉,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활기찬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 김세곤, 〈일본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3권, 1997.
- 김중서,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교육개발》 제14권.
- 김중서,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종교연구소, 《종교학연구》, 제20집, 2001.
- 김철주, 고병철,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론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7권, 2003.
- 류성민,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4.
- 박경현, 〈가톨릭학교 교사의 삶, 가톨릭학교 교사의 영성〉, 《가톨릭학교 교사의 영성》 제2회 가톨릭학교교육포럼 자료집, 2004.
-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선영,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8.
- 변선훈, 〈Raymond Panikkar und Hindu-Christian Dialogue〉, 《신학과 세계》 제2권, 1976.
- 변선훈, 〈타종교와 신학〉, 《신학사상》 제46권, 1984.
- 신광철, 〈영화와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7권, 2003.
- 안병초, 〈서론〉, 《한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서울: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1999.
- 요한바오로 2세, 《교리교육 총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 요한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 월간조선사, 《조선일보연감 2003》, 서울: 조선일보사, 2003.
- 윤주병, 《종교교육과 청소년지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 이봉우, 《종교교육》, 경북: 분도출판사, 1989.
- 이세현,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교의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6권, 2003.
- 이용훈, 〈다종교상황에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제3회 가톨릭학교교육포럼 자료집, 2004년 6월.

- 이종용, 〈이질집단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활기찬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3권, 2001.
- 정현숙,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톨릭의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宗教教育學研究》 제16권, 2003.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개정판) - 라틴어 대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교회헌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개정판) - 라틴어 대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통계청, 〈2003년도 종교활동참여인구〉, (인용날짜: 2005년 5월 21일):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WDA011&IDTYPE=3&FPUB=3.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천주교회통계 2003[인용한 날짜: 2005년 5월 21일]. 인터넷 주소: http://www.cbck.or.kr/pds/statistic/2004_index.htm.
- 한영란, 《교사와 영성교육》. 서울: 내일을 여는 책, 2004.
- 허종열. 《종교교육과 생명의 주기》.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1.
- Williams, M.E., Catholic,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III), p. 261.
- Pius XII, translated by Aldo Rebeschini, *The Catholic Teacher, Education: Papal teachings*, Boston: St. Paul Editions, 1960.

원고접수: 2005년 11월 10일 1차심사: 11월 27일 게재승인일: 12월 14일

연구자 소개: 최준규

-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가톨릭 대학교 전임강사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가톨릭교육, 대학행정, 국제교육
 - ③ 주요논저: 《가톨릭학교 교사의 영성》, 《가톨릭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대학의 국제화의 전략》, 《가톨릭의 사제양성: 원리와 실제》
 - ④ E-mail: sunyata@dongguk.edu
-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Definitions, Objectives, and Methods

Choi, Jun-Gui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which is performed in the Catholic schools in Korea.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ree concepts such as definitions, objectives, and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the religious education employed by the Catholic school. This research provides the in-depth review of literature relevant to the subject based upon a vast volume of the Catholic Church's documents and previous studies.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can be defined as the education for teaching or learning the Catholic truth, which includes not only traditions of the Catholic Church, but also the precious spirits of people such as love, peace, and justice that have been inherited from age to age. The objective of the religious education is to help students reach the self-development and self-fulfillment so as to be like 'another Christ.' Finally, six general recommendations for better practice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chools were suggested as following: (1) Clarify the objective of religious education, (2) Analyze students' needs, (3) Recognize students' environments, (4) Do sympathetic teachings, (5) Establish supporting systems for religious education, and (6) promote excellent educational system for teachers of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Catholic School, Catholic identity, Catholic Church documents, religious education, mission school, secondary education